



교체 위기 딛고 4할 타자 변모 KIA 카스트로, 해결사로 우뚝

복귀 후 32경기 52안타 10홈런 30타점 타율 0.406 맹타
2번·4번 오가며 타선 핵심 자리매김…휴식 후 감각 주먹

볼과 두세 달 전만 해도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KIA타이거즈 카스트로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타자로 거듭났다. 부상 복귀 이후 불방망이를 뽐내면서 KIA의 고인돌 ‘교체 여부’에서 ‘어디에 배치해야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로 완전히 달라졌다.

올 시즌을 앞두고 총액 100만 달러에 KIA 유니폼을 입은 카스트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3월 3경기에서 13타수 7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538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 0.278을 기록한 정교한 콘택트 능력을 KBO리그에서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4월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75타수 15안타 1홈런 12타점 타율 0.200으로 타격감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ABS 스트

라이크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비와 주루에서도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상이라는 약제까지 찾아왔다. 카스트로는 지난 4월 25일 롯데자이언츠전에서 송구를 받기 위해 다리를 뻗는 과정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결국 두 달간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부상 전까지 성적은 23경기 88타수 22안타 2홈런 10타점 타율 0.250에 그쳤다.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합류한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의 활약도 카스트로의 입지를 위협했다. 아데를린은 32경기 121타수 32안타 10홈런 31타점 타율 0.264를 기록하며 장타력을 뽐냈다. KIA가 연장 계약을 검토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아데를린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을 고사하면서 카스트로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결과적으로 KIA의 기다림은 제대로 적중했다.

지난 6월 18일 LG트윈스전을 통해 돌아온 카스트로는 전혀 다른 타자가 됐다. 복귀 이후 32경기 128타수 52안타 10홈런 30타점 타율 0.406을 기록했다. 출루율 0.439와 장타율 0.711을 더한 OPS는 1.150에 달한다. 같은 기간 100타석 이상을 소화한 타자 가운데 타율 4할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카스트로가 유일하다.

최근 활약도 돋보였다. 28~30일 삼성라이온즈와의 대구 3연전에서 10타수 5안타 2홈런 5타점 타율 0.500을 기록했고, 31일 NC다이노스전에서도 4타수 2안타를 때려내며 뜨거운 방망이를 이어갔다.

카스트로의 반등으로 KIA의 타선 운용에도 행복한 고민이 생겼다. 그동안 카스트로는 2번과 4번 타수를 오가며 연결고리와 해결사 역할을 동시에 맡아왔다. 2번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지만 앞선 타자가 출루하지 못할 경우 그의 생산력을 득점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

민거리다.

최근에는 4번 타자로 나서면서 중심타선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박재현과 박상준 등이 테이بل셋에서 출루하고 김도영이 기회를 만들면 카스트로와 나성범이 주자를 불러들이는 공격 구성이 가능하다. 김도영과 나성범에게 집중됐던 부담도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상대 배터리 입장에서는 KIA 중심타선과의 승부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제 관심은 깊었던 휴식 이후에도 카스트로의 뜨거운 타격감이 이어질 수 있는가다. KIA는 폭염 여파로 지난 1일부터 경기를 치르지 못한 채 예상하지 못한 긴 휴식을 보냈다. 11일 리그 재개와 함께 오랜 만에 실전에 나서는 만큼 타격감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시즌 초 교체 대상으로까지 거론됐던 외국인 타자가 이제는 타순 배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 타자로 변신했다. 카스트로가 긴 휴식 뒤에다 ‘반전 드라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빛의 잔상’ 담은 써드 유니폼 공개

네이비 바탕 옐로우·블루 그래픽…역동적인 움직임 형상화
23일 인천·30일 서울전서 착용…오늘부터 한정 수량 판매

프로축구 광주FC가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에너지를 ‘빛의 잔상’으로 표현한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인다.

광주는 11일 켄트너인 스포츠 브랜드 골스튜디오와 함께 2026시즌 써드 유니폼 ‘AFTERIMAGE OF LIGHT(빛의 잔상)’를 공개했다. 지난해 구단 최초로 써드 유니폼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도 광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았다.

이번 유니폼은 ‘순간을 비추는 빛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빛의 잔상’을 콘셉트로 제작됐다. 선수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하나의 빛의 잔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해 팬들의 기

억 속에 오래 남는 광주를 표현했다. 유니폼 전면에는 빛이 지나간 뒤 남는 궤적을 시각화한 그래픽을 적용했다.

필드 플레이어 유니폼은 네이비 색상을 기반으로 옐로우와 블루 계열의 빛이 번지는 듯한 그래픽을 더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에너지가 디자인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골키퍼 유니폼에는 핑크를 중심으로 빛의 잔상이 이어지는 그래픽을 적용해 필드 플레이어 유니폼과 차별화를 뒀다.

세부 디자인에도 구단의 정체성을 담았다. 빛의 잔상 그래픽을 강조하기 위



프로축구 광주FC가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에너지를 ‘빛의 잔상’으로 표현한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인다. 왼쪽부터 김경민, 아이데일.

해 구단 엠블럼과 메인 스폰서 로고 등 주요 요소에는 화이트 색상을 적용했다. 목덜미에는 2026시즌 리그 유니폼

과 마찬가지로 광주를 상징하는 한자 ‘光州(빛 광·고을 주)’를 새겨 도시와 구단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는 의미를 ‘빛의 잔상’이라는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며 “선수들의 움직임과 팬들의 응원이 하나의 빛처럼 어우러져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선수단은 오는 23일 인천 유나이티드전과 30일 FC서울전에서 써드 유니폼을 착용한다. 유니폼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12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골스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17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골스튜디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후 남은 수량은 19일부터 플래그십 스토어, 23일부터 경기장 내 MD샵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GPC생활체육광주센터에서 운영한 ‘2026 행복나눔 골프교실’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체육회, 여름방학 ‘행복나눔 골프교실’

초·중학생 30명 대상 스윙 기술 등 10차례 맞춤형 레슨

광주시체육회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골프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GPC생활체육광주센터에서 운영한 ‘2026 행복나눔 골프교실’을 마무리했다. 이번 골프교실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시체육회는 참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A반과 B반으로 나누고 각 반 15명씩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총 10차례에 걸쳐 전문지도자의 맞춤형 레슨을 받았고, 골프의 기본 자세와 기초 동작을 시작으로 스윙 기술과 골프 에티켓 등을 단계적으로 익히며 골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

였다.

특히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는 학생과 가족 등 80여명이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임데이’가 열렸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골프 실력을 가족들 앞에서 선보였으며, 가족들도 직접 골프를 체험하고 게임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골프교실이 학생들이 방학 동안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스포츠를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종목을 쉽게 접하고 생활체육을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부천 원정 복귀 중 ‘불길 속 운전자 구조’

신창무·프리트온슨 등 소화기로 화재 차량 진입

프로축구 광주FC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이 한밤중 차량 화재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선 이들의 행동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1일 광주FC 등에 따르면 선수단은 지난 8일 부천FC와의 원정 경기를 마친 뒤 구단 버스를 타고 광주로 복귀하던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가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사고는 9일 오전 2시30분께 발생했다.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40대 운전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됐다. 추돌한 승용차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광주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가동 인근 도로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광주FC 선수단이 시만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한문철TV 캡처.

않았다. 구단 버스를 멈춰 세운 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향해 구조에 나섰다.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미드필더 신창무와 공격수 프리트온슨 등은 불길에 번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 내부에 있던 운전자를 밖으로 구조하는데 힘을 보탰다. 언제 불길이 더 크게 번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운전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함께 이동하던 구단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일부 스태프들은 선수들과 함께 구조를 도왔고, 버스운전기사 김중문 주

임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구단 차량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꺼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사고 차량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광주 선수단의 선행은 당시 현장을 지켜본 제보자가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연을 알리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11일 ‘한문철TV’에는 ‘광주FC 구단의

의로운 선행을 제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광주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현장에 멈춰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돕는 과정이 담겼다.

선수단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장시간 이동 중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위급한 사고를 외면하지 않았다. 특히 몸이 자살인 프로축구 선수들이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직접 접근해 운전자 구조에 나섰다. 점에서는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사연을 접한 축구팬들과 시청자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선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반응이 잇따랐다.

신창무는 구단을 통해 “앞에서 사고가 났고 차에 불이 붙어서 빨리 구조해야겠다 생각했다. 119 신고 후 바로 차량을 확인하려는 참인데 다행히 안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금방 구조할 수 있었다”고 덧붙

였다. 광주는 올 시즌 그라운드 안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만큼은 승매보다 값진 모습을 보여줬다. 위급한 순간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행동은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도 보여줬다.

송하중 기자 hajong2@

KLPGA 메디힐·한국일보 대회 13일 개막

김민솔·서교림 등 총출동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 두 번째 대회인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이 13일 막을 올린다.

올해로 5회째인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은 나흘간 경기도 포천의 몽베르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엔 총 123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올 시즌 이미 3승을 거둬 상금 9억

8962만원)과 대상 포인트(313점) 모두 1위를 달리는 김민솔을 필두로 그를 뒤쫓는 서교림, 김민선, 유현조 등 현재 KLPGA 투어 강호들이 총출동한다.

김민솔은 하반기 첫 승이자 시즌 4승에 도전하고, 지난 시즌 상금왕 홍정민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며, 상반기 마지막 대회인 이달 초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이다연 등 메디힐 소속 선수들도 우승에 도전한다. 초청 선수로 미국 LPGA 투어 메이저 챔피언 출신의 김아림과 박성현이 나서는 것도 눈에 띈다.

연합뉴